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2022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변수들이 큰 폭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금리 큰 폭 상승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한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²²⁾이 이어지며 큰 폭 상승하였다. 연초부터 오름세를 보이던 미국 장기금리는 6월 들어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세가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미 연준의 긴축기조가 강하게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²³⁾. 독일 장기금리도 미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확대²⁴⁾ 및 ECB의 금리인상²⁵⁾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신홍국의 EMBI+ 가산금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큰 폭 상승하였다가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후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기대 변화에 따라 등락하다가, 11월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진정²⁶⁾,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

그림 1 - 19. 주요국 국채금리 및 EMBI+ 가산금리



자료: Bloomberg, JP Morgan

표 1 - 9. 주요국 국채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 bp)

	2021		2022		
	3월	6월	9월	12월	
국채금리(10년물)					
(미국)	1.51	2.34	3.01	3.83	3.87
(독일)	-0.18	0.55	1.34	2.11	2.57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¹⁾	186	189	236	220	188
(신홍국 CDS 프리미엄) ²⁾	187	228	339	332	239
(신홍국 가산금리) ³⁾	386	368	461	467	375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8개 신홍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22) 미 연준은 3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2년 중 정책금리를 총 7회에 걸쳐 425bp 인상하였다. 특히 6월 이후 11월까지 네 번 연속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였다.

23) 특히 8월 26일 개최된 잭슨홀 경제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안정 우선 기조를 재확인함에 따라 이후 시장의 미 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강화되었다.

24)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월 7.4%에서 10월 10.6%까지 높아졌다.

25)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2년 중 정책금리를 총 4회에 걸쳐 250bp 인상하였다.

26)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6월 9.1%에서 11월 6.5%까지 낮아졌다.

책 완화²⁷⁾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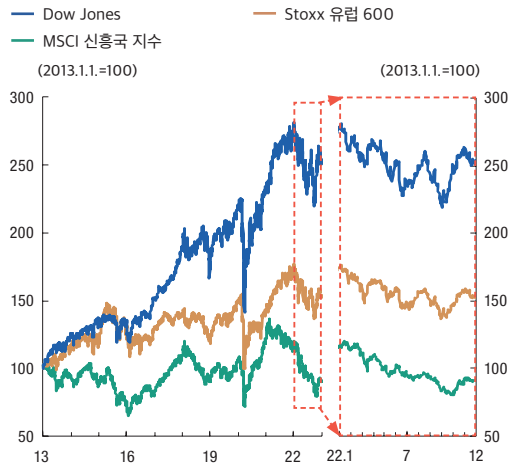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 하락

미국 주가(다우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하였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와 함께 인플레이션 진정²⁸⁾에 따른 긴축 속도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도 ECB의 금리인상 속에 경기침체 우려가 가세하면서 하락하였다.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는 글로벌 투자심리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선진국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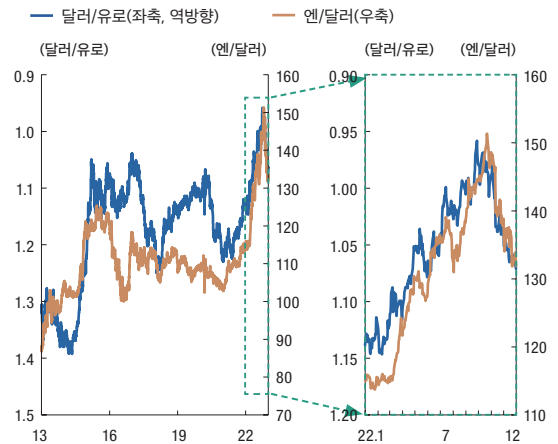
미 달러화는 미 연준의 주요국 중앙은행 대비 긴축 기조 강화에 따라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었다. 미 달러화의 가치는 2022년 중 유로화 대비 6.3% 절상, 엔화 대비 13.9% 절상되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로지역의 경기둔화 우려가 가세하면서 미 달러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다가 10월 이후 ECB의 긴축 강화²⁹⁾,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강세폭을 축소하였다.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이다가 10월 말 이후 일본 당국의 달러화 매도개입³⁰⁾,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Yield Curve Control) 정책 변

그림 1 - 20.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자료: Bloomberg, JP Morgan

그림 1 - 21.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자료: Reuters

27) 시진핑 국가 주석은 코로나 방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11월 10일), 이후 중국 방역당국은 격리기간 단축, PCR 검사 축소, 고위험지역의 봉쇄 해제 등 방역 완화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28)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7.7%로 시장예상치(7.9%)를 하회하였다(11월 10일).

29)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한 데 이어 9월 및 10월 회의에서는 75bp씩 인상을 하였다.

30) 일본 재무성은 10월 중 6.3조 엔 규모의 외환시장개입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10월 31일).

경³¹⁾ 등으로 강세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나. 국내금융시장

2022년 중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장기시장금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단기시장금리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회사채 및 CP 금리는 10월 PF-ABCP 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등에 따른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은행 여신은 기업대출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높은 운전자금 수요,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에 따른 대출활용 확대 등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 매매거래 부진,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감소 전환하였다.

(1) 금리

장·단기금리 큰 폭 상승

2022년 들어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 이후 영국 금융시장 불안³²⁾, 10월에는 국내

31) 일본은행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제 10년물 금리의 변동범위를 $\pm 0.25\%$ 에서 $\pm 0.50\%$ 로 확대하였다(1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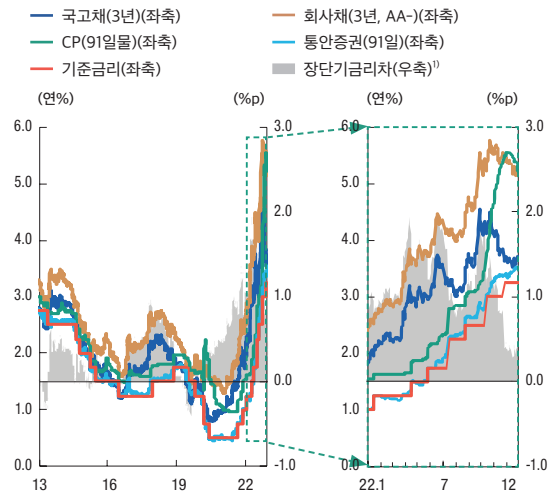
PF-ABCP 시장 불안³³⁾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연중 최고 수준까지 급등하였다³⁴⁾.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³⁵⁾, 미국 등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회사채(3년)금리도 연중 큰 폭 상승하였다. 국고채 금리 대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³⁶⁾를 보면 2022년 중 금리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한전채·은행채 발행 확대에 따른 신용채권 간 구축효과³⁷⁾, 10월 이후 시장 불안 등 영향으로 크게 확대³⁸⁾되었으며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에는 소폭 축소되었다.

한편 단기시장금리도 2022년 중 크게 상승하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하여 상승하였으며 CP(91일, A1등급) 금리는 PF-ABCP 시장 불안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연말경 다소 하락하였다.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도 이러한 시장금리 상승 등을 반영하여 큰 폭 상승하였다³⁹⁾.

그림 1 - 22. 주요 시장금리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 32) 영국 리즈 트러스(Liz Truss)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최고 소득세율 구간 철폐, 법인세 인상계획 철회 등이 포함된 대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하였다(9월 23일). 이후 영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짐에 따라 동 감세안이 철회되고 Truss 총리는 조기 사임하였다(10월 20일).
- 33)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받은 대출을 기초로 아이원제일차(SPC)가 발행한 PF-ABCP가 부도 처리(10월 4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CP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 3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국고채금리 연중 최고치 재돌파, 그 배경과 평가는?」)를 참조하기 바란다.
- 35) 정부는 10월 23일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16조원), 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3조원),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지원(15조원), 증권사 보증 PF 매입프로그램(1.8조원) 등을 발표하였고, 한국은행은 10월 27일 적격담보대상 및 대상증권 확대,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 매입(6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 RP 매입(2.5조원)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한국은행 블로그(「최근 단기금융 및 채권 시장 불안과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참조하기 바란다.
- 36) 회사채 신용스프레드(AA- 3년물 기준, 국고채 대비)는 2021년 12월 말 61bp에서 2022년 6월 말 81bp, 9월 말 109bp, 11월 말 179bp로 확대되었다가 12월 말 148bp로 축소되었다.
- 37) 2022년 중 한전채, 은행채 등 AAA등급 신용채권 순발행액은 총 53.1조 원으로 전체 신용채권 순발행액(50.6조 원)의 105%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신용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한 여타 신용채권 수요를 구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근 신용채권시장 상황 평가 : 신용스프레드 확대요인을 중심으로」(BOK이슈노트 제2022-42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 39) 2022년 12월 중 여신금리는 5.56%로 2021년 12월(3.25%)에 비해 2.31%p 상승하였으며 여신종별로는 기업대출금리가 2.42%p, 가계대출금리는 1.94%p 상승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최근 기준금리 인상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수신금리는 4.22%로 2021년 12월(1.70%)에 비해 2.52%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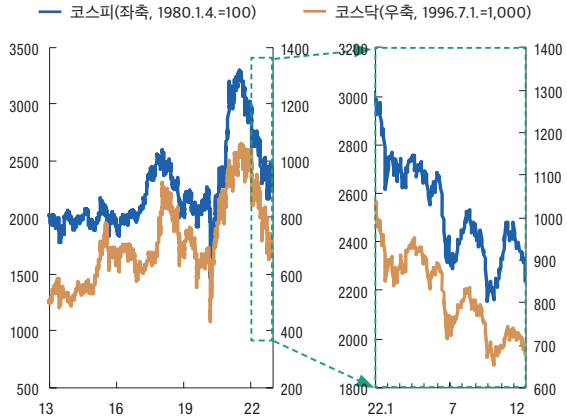
(2) 주가

코스피 큰 폭 하락

2022년 중 코스피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연초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중국 내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 등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 등으로 조정이 지속되다가 7월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하였으나 9월에 영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재차 하락하여 연저점(2,155, 9월 30일)을 기록하였다.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였으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우려, 미·중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2021년말 대비 24.9% 하락한 2,236으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그림 1 - 23.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수신 증가폭 축소

2022년 중 은행 수신은 2021년에 비해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정기예금 금리의 큰 폭 상승으로 수시입출식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가운데 은행 전체 수신규모는 대출 증가폭 둔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 약화 등으로 축소되었다.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수신이 증가하였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가 하락, 대내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⁴⁾.

표 1 -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은행 ¹⁾	91.6	106.3	188.4	198.5	107.4
수시입출식	10.9	65.9	189.3	131.0	-104.9
정기예금	72.2	48.3	-14.4	41.8	200.1
시장성수신 ²⁾	7.8	-14.6	14.6	33.9	13.6
자산운용회사 ³⁾	53.8	98.6	42.2	93.9	44.4
상호저축은행	8.6	6.1	13.2	23.3	17.6
신용협동기구 ⁴⁾	39.7	60.7	50.1	69.4	86.0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혼합형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기업대출 상당폭 증가, 가계대출 감소 전환

2022년 중 기업대출은 은행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확대되었다.

대기업대출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높은 가운데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 등으로 대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은행대출로 집중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⁴¹⁾.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자금지원⁴²⁾ 지속 등으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 매매거래 부진 등으로 대출수요가 위축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규제⁴³⁾ 강화 등의 영향도 가세하면서 감소 전환하였다⁴⁴⁾.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며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표 1-11.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업대출	81.8	90.2	169.6	171.5	198.0
은행	46.7	47.7	110.8	94.1	114.9
대기업	6.9	-1.8	20.9	9.0	44.3
중소기업	39.8	49.4	90.0	85.1	70.6
비은행 ¹⁾	35.1	42.5	58.8	77.4	83.1
가계대출 ²⁾	76.8	58.3	128.7	123.5	-7.8
예금은행	52.4	54.6	82.2	60.2	-7.5
(주택담보대출)	30.1	39.7	49.9	45.7	14.6
(기타대출)	22.4	14.9	32.2	14.6	-22.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³⁾	6.8	-4.5	7.6	27.6	-6.0
기타금융기관 등 ⁴⁾	17.5	8.1	39.0	35.7	5.7

주: 1)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변동성 큰 폭 확대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중 고인플레이션 지속 및 이에 따른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1~2월 중 1,200원 내외에서 등락하던 원/달러

40) 2022년 중 자산운용사 수신을 펀드 유형별로 보면 채권형펀드(-11.1조 원) 및 주식형펀드(-4.6조 원)에서 자금이 유출되었고, MMF(+16.0조 원) 및 기타펀드(+48.0조 원)로는 자금이 유입되었다.

4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최근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어려운가?- 회사채와 은행대출을 중심으로”)를 참조하기 바란다.

42) 정부는 당초 2022년 9월 말 종료예정이었던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지원(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하였다.(2022년 9월 27일, 금융위 보도자료)

43)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년 4월 29일, 10월 26일)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3단계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한편 2021년 8월 시행된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의 연소득 이내 제한 규제는 2022년 7월부터 폐지되었다.

4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상반기 가계대출 증가규모 최저치 기록, 향후 전망과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를 참조하기 바란다.

러 환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코로나19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고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가속화로 미 달러화가 큰 폭의 강세⁴⁵⁾를 보인 데 영향받아 10월에 1,44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그동안 시장 예상을 상회하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미 연준이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1,260원대까지 빠르게 하락하였다. 2022년 말 원/달러 환율은 1,264.5원으로 2021년 말(1,188.8원) 대비 6.0% 절하되었다.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BIS 기준)는 미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교역비중이 큰 중국 및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위안화 및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2022년 말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2021년 말(97.39) 대비 0.9% 상승한 98.23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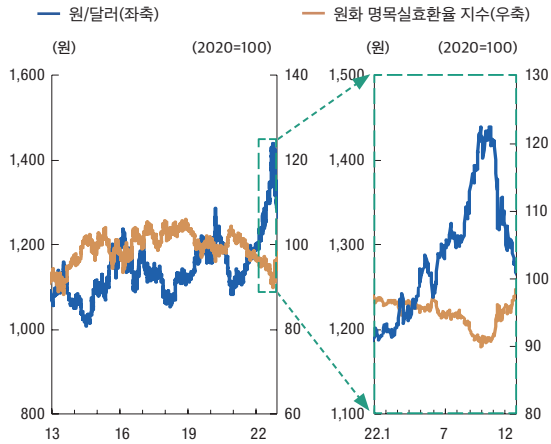
한편 2022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일평균 8.4원 및 6.5원으로 2021년(각각 5.2원 및 3.6원) 대비 확대되었다.

외화자금시장 안정세 유지

2022년 중 미 달러화의 가파른 강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으나, 외화자금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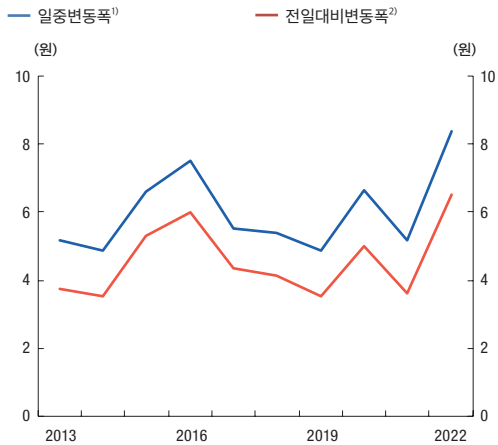
내외금리차에서 스왑레이트⁴⁶⁾를 차감한 차이

그림 1 - 24. 원/달러 환율 및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¹⁾



주: 1)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종가,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BIS 발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BIS

그림 1 - 25. 원/달러 환율 변동폭 (연평균)



주: 1) 일중 변동폭(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전일 대비 변동폭(당일 증가 - 전일 증가) 절댓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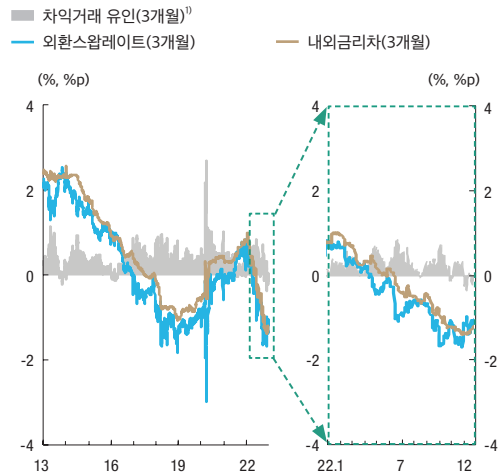
45) 주요 6개 통화(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지수(DXY)는 2022년 1/4분기 평균 96.9에서 3/4분기 평균 108.3까지 상승하였다.

46)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거래유인(3개월)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강화된 거시건전성에 힘입어 국내은행의 대외차입 가산금리 상승 폭이 제한⁴⁷⁾ 되는 등 대외차입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는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역전폭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영향으로 11월 하순 -1.70% 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12월 들어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부각 등으로 하락폭을 축소하여 2022년 말에는 2021년 말 대비 1.83% 포인트 하락한 -1.15%를 기록하였다.

그림 1 - 26. 외환스왑레이트



주: 1) 차익거래유인 = 내외금리차 - 스왑레이트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융재(주), 한국 플랫폼레본 외국환중개(주)

QR BOX



QR 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웹페이지



QR 2

국제경제리뷰: 부동산시장
동향, 정책대응 및 평가



QR 3

지역경제보고서
웹페이지



QR 4

한국은행 블로그

47)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게 부각되었던 2020년 3월 당시 국내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67bp 수준(2019년 평균 대비 +64bp)이었으나 2022년 11월에는 19bp 수준(2021년 평균 대비 +17bp)에 불과하였다.